휴먼스토리 없는, 오직 '맛'의 승부

전문기자의 窓

김 성 윤
음식전문기자

"흑백요리사 봤어?"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엄청난 인기다.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TV 시리즈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출연한 셰프들의 맛집 메뉴와 가격, 특장점까지 담은 지도가 줄줄이 올라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에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식당' 리스트를 신설했다. 생존한 요리사뿐 아니라 탈락한 요리사들의 식당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거나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고 있다.

요리 그리고 서바이벌 오디션은 진부한 소재와 포맷이다. 요리 프로라면 뻔해서 외면했지만 흑백요리사는 챙겨 본다는 요리사가 해준 말에서 비결을 찾을 수 있었다. "요리만 나오잖아요."

그동안 서바이벌 프로들은 흥행 장치로 '스토리텔링'과 '성장 서사'를 사용했다. 가정사, 집안 환경 등 출연자 개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어려움을 집중 조명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스토리에 감정 이입했고,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며 팬이 됐다.

아이돌그룹 멤버의 사생 팬 또는 특정 정치인의 극단적 지지자들처럼, 이들은 실력과 관계없이 몰표를 주었다. 더 강력한 팬덤을 가진 출연자가 더 뛰어난 상대를 누르고 우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실망하고 피로감 느끼는 이들이 많았고, 요리 서바이벌 프로의 몰락 원인이 됐다.

흑백요리사에는 출연자 개인의 스토리텔링과 성장 서사가 없다. 생존과 탈락은 오로지 맛으로 가려진다. 요리라는 본질에만 집중했다. 심지어 '백수저 요리사' 20명과 '흑수저 요리사' 20명이 1대1로 맞붙는 2차 대결은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됐다. 두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미쉐린 스리 스타 레스토랑 '모수' 오너셰프)는 눈을 안대로 가렸다. 조리 과정도, 완성된 음식도 보지 않고 맛으로만 평가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 우승, 미쉐린 스타 획득 등 높은 명성과 인지도를 가진 '백수저 셰프' 20명에게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 80명이 도전하는 계급 간 대결 구도로 긴장감을 더하려 했다. 하지만 흑수저 셰프 상당수는 백수저 셰프보다 지명도에서 밀린다고 말하기 힘들다. TV보다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요즘, 구독자 14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승우아빠'를 운영하는 목진화씨가 과연 백수저 요리사들보다 덜 유명할까.

백수저로 분류된 요리사들은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흑수저 요리사 80명 중 25%인 20명만이 1차 대결을 통과해 2차 대결에 나섰다. 물론 2차전부터는 계급 구도도 사라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흑백 구분 없이 대결했다면,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동훈은 尹대통령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정우상 칼럼

논설위원

尹은 韓이 검사 때처럼
자신의 '보완재'이길 기대
김 여사 문제, 의료 사태로
'대체재' 모색하자 갈등

당대표는 참모 아닌
대통령의 정치 파트너
"진짜 이유 말해봐요. 왜 나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영화 이야기다. 보스는 자신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부하에게 특별 임무를 준다. 자신의 젊은 애인을 감시하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즉시 보고하라. 이 부하는 2인자 경쟁에서 선두였다.

부하는 보스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지만, 남자를 패줬을 뿐 이런 사실을 보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무슨 명령이든 따랐던 이 부하는 여기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만다. 사실대로 보고했을 경우 여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보스가 아닌 여자의 '눈높이'로 판단했다. 부하는 왜 보스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몰라 독대를 요청하지만 거부당한다.

여기부터는 정치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검사 3명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금감원장에 임명했다. 당사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고 말하고, 친윤들은 대통령이 그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한동훈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사 때나 지금이나 이들을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자신의 '보완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꼼꼼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윤 대통령은 선이 굵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검사 윤석열이 이름을 알린 적폐 청산, 댓글 수사는 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들은 훌륭한 팀이었다. 보완재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본체가 빛났다.

윤 대통령은 원래 한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완재로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한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요청했다. 윤재옥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물색하겠다"고 했고, 결론이 한동훈이었다. 이때 이미 한동훈과 대통령 갈등의 축인 '국민 눈높이'가 등장한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 되자 최대 난제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고 얼마 안 돼 사퇴를 요구받았다. 대통령은 그를 여전히 '보완재'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하려 한 것이다. 친윤들은 한동훈이 윤석열의 '대체재'가 되려 한다고 수군거렸다. 비대위원장 때는 이종섭·황상무, 비례대표 공천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해병대원 특검, 김경수 복권, 의료 사태, 다시 김 여사 문제로 충돌했다. 이번 용산 만찬을 두고 "한기(寒氣)마저 느껴졌다"고 말한 의원도 있다.

집권당 대표는 장관이나 참모와 달리 대통령의 '보완재'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자리다. 상명하복이 아닌 정치 파트너로 협력하고 때론 갈등을 감수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숙명적 관계다. 수시로 만나고 전화하는 게 정상이다. 독대를 하네 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의료 사태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독대에서 말하려 한 것 같다. '보완재' 한동훈, '대체재' 한동훈은 공존하기 힘들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 문제는 임계점에 왔다. 준 사람은 죄가 되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건 법률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허위 경력과 관련해 사과 회견을 하며 한 말이다. 여기서도 '국민 눈높이'가 나온다. 묘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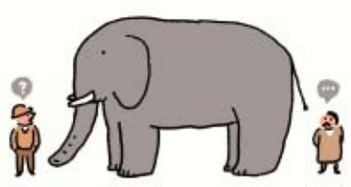
다시 영화 이야기다. 보스와 대립한 2인자(이병헌)는 보스(김영철)와 최종 독대한다. "너 정말 이럴 거냐." 보스가 물었다. "당신 밑에서 열심히 일해온 나한테 왜 그랬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보스는 답한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는 엔딩 자막이 나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대통령과 한 대표 문제는 엔딩 자막이 뜨면 정말 끝장나는 정치다. 한동훈과 윤 대통령 관계는 김 여사 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후 '이재명 극장'이 열린다. 다음 달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도 나온다. 배우, 조연, 팬클럽, 훼방꾼 모두 준비 운동 중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옆집 '김건희 극장'이 불야성이다. 이렇게 흥할 영화가 아니었는데 극장주인이 박절하지 못했다. 조조 할인에 심야 할인, 동시 상영에 롱런 기세다. 이러다 '이재명 극장', 파리 날리겠다.

萬物相

코끼리 문제 풀기

지난 6월 인도 케랄라주(州)의 한 힌두교 사원에 키 3.3m, 무게 800kg의 실물 크기 '코끼리 로봇'이 등장했다. 실제 코끼리를 대신해 힌두교 의식에 쓸 수 있도록 기증한 로봇이었다. 힌두교도들은 코끼리 머리가 달린 가네샤(Ganesha)신에게 빌면 사업·학업의 장애가 해결된다고 믿는다. 종교 행사를 위해 불법 사육되던 코끼리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폭주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케랄라주에서만 15년간 526명이 사망했다. 동물 보호 단체는 코끼리 학대를 줄이자며 눈·코·귀·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사원에 기증하고 있다. ▶코끼리는 침팬지나 돌고래만큼 지능이 높다. 미국이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 6월 국제 학술지에 코끼리들이 서로 '이름'을 부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4개월간 케냐에서 녹취한 코끼리 울음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코끼리를 식별하는 소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현생 육상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큰 코끼리는 먹이도 그만큼 많이 먹는다. 조선 태종 때인 1411년 일본 사신이 코끼리를 바쳤는데, 매일 콩 너덧 말을 먹어 골치를 앓았다. 코끼리 8만40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짐바브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국민 760만명이 기아에 직면하자, 지난달 코끼리 200마리를 도살해 고기를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가장 많은 국가다. 13만마리에 이르는 코끼리를 줄이기 위해 '트로피 헌팅(레저형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 올봄 영국과 독일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츠와나는 "영국에 1만마리, 독일에 2만마리를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소중하면 같이 살아보라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최근 국경을 맞댄 탄자니아와 케냐가 코끼리 보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에 사는 코끼리 2000마리 중 600마리 정도는 탄자니아를 자주 찾는다. 지난해 탄자니아 정부는 "국토의 40%에 이르는 야생 보호 구역 관리 비용으로 쓰겠다"며 '트로피 헌터'들에게 코끼리 사냥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탄자니아에 건당 1만~2만달러(약 1300만~2600만원)를 낸 사냥꾼들은 웅장한 상아를 지녀 '수퍼 터스커'라고 불리는 코끼리들까지 잡는다. 국내총생산(GDP)의 8~9%를 관광으로 버는 케냐에서 "코끼리가 줄어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는 코끼리에게도 중대한 문제다.



김진명 논설위원

김도훈의 엑스레이 [39]

가을 깔롱쟁이는 끝났다

옷이 많다. 나를 모르는 자가 집에 온다면 허영 많은 단역 배우 집이라 생각할 것이다. 옷을 좋아해 어린 시절에도 깔롱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깔롱쟁이는 멋쟁이의 경상도 방언이다. 꼭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가장 많은 건 가을옷이다. 옷은 역시 가을옷이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 디자인도 다양하다. 특히 나는 잠바가 많다. 점퍼의 일본식 표현이다. 의외로 표준어다. 나는 아직도 겨울옷은 돕바라 부른다. 토퍼의 일본식 표현이다. 순화해 말해야 옳다. 잠바, 돕바라 불러야 어쩐지 기분이 산다. 역시 옛날 사람이다.

얼마 전 금천패션영화제에 일하러 갔다. 패션 단편을 상영하는 영화제다. 구로공단이 있던 패션 특화 지역 금천구 주최로 열린다. 걱정 한마디 하자면, 정부 문화 예산 삭감으로 많은 지역 영화제는 존폐 위기다. 금천패션영화제 계속 여부는 지원사 마리오아울렛 경영 실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영화제 행사를 진행하기 직전 거울을 봤다. 작년까지 나는 잠바를 입고 참가했다. 올해는 반팔에 반바지였다. 여름이 길어졌다. 너무 길어졌다. 가을 잠바는 쓸모없는 옷이 되어간다. 잠바 입으려면 곧 돕바를 꺼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깔롱쟁이의 적이다.

지금 나는 부산국제영화제 출장을 위한 짐을 싸는 중이다. 내일 서울 기온은 10도까지 떨어진단다. 가을 재킷을 입으려던 계획은 수정했다. 겨울 코트를 꺼내야 한다. 무슨 코트를 입을지 고민하다 테스 형 말처럼 나 자신을 알기로 했다. 영화 평론가 따위가 행사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가을은 없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순식간에 영하 18도 겨울이 될 것이다. '가을 멋쟁이의 시절은 끝났다'고 우는 깔롱쟁이들이 당근마켓에 저렴하게 올리는 트렌치코트를 사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다. 가을옷은 쓸모없다 하지 않았냐고? 옷을 꼭 입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은가? 반론은 책을 반드시 읽으려고만 사는 독자에게만 허락하겠다.

문화칼럼니스트

朝鮮日報 The Chosunilbo 제32242호 단기 4357년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전화안내 02)724-5114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독자서비스센터 전화 1577-8585 FAX 02)724-6299 홈페이지 members.chosun.com
광고신청·안내 전화 02)724-5838, 6666 FAX 02)724-5809 홈페이지 about.chosun.com
구독·배달안내 전화 080-900-0077(전국 공용)
회장 方相勳 사장 方準梧 발행·편집·인쇄인 洪準浩 주필 楊相勳 편집국장 鮮于鉦
1920년 3월 5일 창간 ·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93(日刊) 조선일보사
구독료: 한달 2만원, 1부 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는 여태 속고 살았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왜,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을 만드는가 … 《문화전쟁》이다
나는 무지했다 |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오해했다 |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죄하려 한다 | 대한민국에

▲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포스터. 《별들의 고향》 감독 이장호가 메가폰을 잡는다. (www.habouman.com)

나는 《하보우만의 약속》을 통해 역사를 잘못 인식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려 한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대한민국에 사죄하려 한다. 나의 가족사진을 공개하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왜 잘못 알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무지와 오해에 대한 용서를 구하려 한다.

영화감독의 뒤늦은 고백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보우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 나, **이장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승만**은 친일파, **박정희**는 독재자로 알고 자랐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다.

뒤늦게 **이승만**은 건국·호국 대통령, **박정희**는 흥국 대통령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악마가 뒤집어 씌운 프레임, 《친일과 독재》

이승만 박정희, 두 위인에게 씌워진 악의적 프레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임종국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모두를 친일파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렸다. **임종국**사후, 그의 주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다. 악마적으로 편향 편집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김정일*의 말처럼, 《**1백년의 반일**》을 하려면 《**1천년의 반중**》도 해야한다. 우리나라를 침략할 명분도 힘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일본을 향해 《**반일**》을 외칠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중공)에 대한 《**반중**》도 함께 해야하는 것 아닌가?

거짓 영화 vs. 진실 영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애국우파들은 ※**조직력** ※**문화전쟁** ※**역사전쟁** ※**교육전쟁** 등에서 좌파에게 밀렸다. 이제 우파도 ※**문화전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재자* ★*3.15 부정 선거 원흉* ★*한강 다리 철교 폭파 런승만*이라는 프레임을 씌어왔다. 모두 거짓인데도, 이제 좌파들의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한다.

좌파를 더 이상 《**진보**》라 부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중국에 사대하고 자국민 절반 이상을 노예화 했던 《*이씨조선*》을 이어받은 《*김씨조선*》에게 충성을 맹세한 《**수구**》에 불과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서울의 봄*》 《*아수라*》 《*변호인*》 《*택시기사*》 《*꽃잎*》 《*화려한 휴가*》 등 끝없는 왜곡·선동·거짓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때 가장 유효한 것이 바로 ※**문화전쟁**이다. 좌파들의 거짓 영화들에 대한 반박 영화가 만들어져야한다.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울던 분들이 가장 많이 속아왔던 분들이다. 좌파들은 《*진지전*》 중이다. 사회 각 계각층에 독버섯처럼 침투,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왔다. 그것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영화**》이다. *김정일 하틀러*가 영화광이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부메랑 전략이다.

다큐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거짓을 거두어내려 한다. ★*5.18* ★*효선이 미선이* ★*광우병* ★*싸드* ★*세월호* ★*박근혜 탄핵* ★*이태원* ★*후쿠시마* 등등.

지금 그들은 계엄령 운운하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사파 북한화로 가기 위한 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의 거짓 선동·공작을 부수는데, 《**하보우만**》 다큐가 일조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장 호 영화감독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9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1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
《하보우만의 약속》 제작을 지원해주세요. 제작설명 : 10월 5일,12일 오후 6시반, 서울 새문안로 청양빌딩 10층, 문의 010-2705-5000 후원계좌 | 하나은행 212-910016-02504 트루스코리아